■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TV합동토론회

李-朴 '대운하' '분식회계' 재격돌

李 '선진국 전쟁불사' 발언 논란…후보들 저마다 "통일시대 적임자"

9일 오후 YTN 주관으로 열린 제2차 한나라당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쟁점마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두 사람은 전날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펼친 대결이 성에 차지 않았다는 듯 이날 토론에서는 아예 작정한 것처럼 '비수'를 들이댔다.

대선주자들은 또 경선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자신만이 '통일시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양보없는 설전=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시 부채 3조원 탕감' 주장과 관련, "캠프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는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기업경영 경험이 없어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무지의 소치'라고 치부하면서 넘어갔다.

두 사람 간에는 "누가 자료를 잘못 뽑아준 것 같다"(이명박), "무조건 습관적으로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유감"(박근혜) 이라는 등 가시 돋친 언사가 오갔다.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시장이 선공을 펼쳤다.

그는 박 전 대표에게 "대운하는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검토했다가 폐기했다고 말했는데 실은 폐기가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당시 건설부 장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까지 들어 보이면서 "아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이 지

9일 서울 상암동 YTN스튜디오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에서 네티즌과 시청자들의 UC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통한 질문이 선거 사상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역가입자로 가입했다면 월 12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을텐데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 2만원의 건보료를 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전 시장은 "어떻든 1년에 2억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몇만원을 절감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걸프전 당시 현대근로자 귀국조치 여부', 'BBK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면 어떻게 신뢰하나", "경영능력에 회의가 제기된다"면서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이 전 시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물어보니 대답하기 곤란하다", "온 세계로부터 CEO(최고경영자)로 인정받는 데 박 후보에게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박, 토론회내내 두 사람간에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이명박, '선진국 전쟁불사' 발언 논란=이 전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처음 도입된 UC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통한 질문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전쟁 불사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이들의 유가족이 요구하는 '강한 나라론'에 대해 대통령이라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의 목적)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국민 한사람을 위해 전쟁을 불사한다"고 답했다.

논란의 기미가 보이자 이 전 시장측은 "국가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장기화 국면이 인질 안전엔 도움

과거 사례 분석…"사태 장기화될 수록 생존률 높아"

발생 3주째를 넘어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질들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일단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인질의 생존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단체들에 의해 납치된 인질들이 살해되는 시점은 보통 사태 발생 직후에 몰려 있고 사태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인질이 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1월에 탈레반에 납치된 인도인은 3일 만에 살해됐다. 이듬해 4월 납치된 또 다른 인도인도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태의 희생자인 고(故)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도 사태발생 후 초기단계에 변을 당했다. 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엔 인질들은 대부분 목숨을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월 탈레반에 납치된 터키인은 113일 동안이나 억류됐지만 무사히 석방됐고 지난 4월 납치된 프랑스인은 39일간 인질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살해위협을 받았지만 결국 생환했다.

이에 대해 테러협상 전문가인 경찰대 이종화 교수는 "장기적으로 가면 인질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납치범과 인질 사이에 심리적인 동화현상이 생기고 상해를 가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탈레반이 인질 석방 조건으로 내건 동료 탈레반 재소자 석방은 아프간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사태 생 2주를 넘어서면서 인질들의 안전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아프간 피랍한국인 무사귀환 염원 9일 오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염원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염원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구호요원들 한달내 모두 귀국"

강성주 아프가니스탄 대사

강성주 주(駐)아프가니스탄 대사는 8일 동부 난가하르주의 파슈툰 부족 지도자들과 만나 아프간에서 구호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 요원들이 한 달 내 모두 귀국할 것이며 정부가 앞으로 구호요원들의 아프간 여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아프간 TV를 인용, 강 대사가 이날 카불의 한국대사관을 방문한 부족 지도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구호요원들의 아프간 여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카불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이날 통화가 이뤄졌으나 아프간 TV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으며 대사관 대변인과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가즈니주(州)의 마라주딘 파탄 주지사는 성사 여부를 놓고 시선을 끌어온 한국정부 대표단과 탈레반 무장세력과의 인질석방 협상을 위한 첫 대면장소 논의와 관련,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틀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유찬씨, 李 위증교사 폭로는 허위"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9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김유찬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16일과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1996년 9월 발생한 부정 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에서 위증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월에는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 책자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관련 사건 수사 · 공판기록 등 자료와 1996년 사건 당시 참고인 등에 대한 김씨의 법정 진술과 경과, 위증 교사 및 대가 수수의 가능성 및 그 여부, 보좌관 직 해임 경위, 상암동 DMC 빌딩 사업 경위 등을 조사한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 이광철씨에 대해선 "접촉을 극구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협상장소 유엔보장 고집

"의약품 전달 받아 인질 건강 호전"

한국인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측이 한국대표단과의 대면협상과 관련, 아프간 정부와 내부 마찰로 협상대표를 사임한 와히둘라 무자다디가 제시한 장소를 수락했지만 여전히 유엔의 안정보장을 고집하고 있어 대면장소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국인 납치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물라 압둘라 잔 부사령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마숨 샤힘은 9일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무자다디가 제안한 장소를 대면협상 장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대신 유엔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가즈니주 출신의 하원의원인 무자다디는 최근 탈레반에 가즈니주 주도인 가즈니시티에 있는 자택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한국 정부와 탈레반의 대면협상 장소로 탈레반에 제안했었다.

인질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샤힘은 "(카불의 민간병원인) 와하즈 병원에서 제공한 의약품의 일부를 받아 인질에 처방했으며 전반적으로 인질의 건강은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